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법 1

<실패했던 방법>

① 암기

⇒ 문법에 있어서 암기는 참 중요합니다. 어찌보면 암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정말 달달 외웠습니다. 일단 구조도를 싹 다 외우고 세세한 것들까지 참 많이 외웠어요...거의 읊면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 원리를 모르는 암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파편적인 것들만 외우다보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줄줄 외우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어 임용은 적용력을 갈수록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법은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어리석었죠. 문법도 적용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외우기만 하면 적용이 안 돼요ㅠ

② 예문 대강 보고 이론 위주로 본 것

⇒ 1번과 연관됩니다 ㅋㅋㅋ 생각을 안 하고 외우기만 하니 예문이 눈에 들어올 리가.....ㅋㅋ 예문으로 적용할 생각은 못하구 이랬네요 ㅋㅋ 왜 개론서를 보면 이론이 있고 그 밑에 예문들이 참 많죠. 문법 책들이 하나같이 예문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이론만큼이나 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론만 달달 외워서 적용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③ 파편적인 세부 이론에 집착

⇒ 자꾸 동어반복인 것 같은 느낌이....문법을 공부하다보면 개론서마다 약간 특이한 이론들 있죠? 특히 우리말 문법론에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기출에 나오기도 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외웠어요. 공부하다가 못 본 세부이론이 나오면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랬어요. 아 내가 이걸 또 놓쳤구나 싫어서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못 봤던 세부 이론이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적용력을 키우려 하지 않고 다 외우려고만 했어요.

④ 기출문제 허당 분석

⇒ 문제에 관련된 이론 옆에다 정리하는 짓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문법인 듯 ㅋㅋㅋ 그런 기출문제 분석도 사람에 따라서는 맞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확실히 알고 나서 그렇게 이론 정리를 한다면야 문제 없겠지만 저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출분석을 했습니다.

<성공했던 방법> - 김준쌤께 배운 방법입니다.

① 이해

⇒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정말 중요해요. 암기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데 대체 여기서 '이해'가 무엇이냐?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하고 아무리 설명해보려고 해도 넘나 추상적이에요ㅠㅠ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기'였습니다. 이게 효과 직빵입니다. 달달 외우기만 해서는 절대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하고 공부하면, 남에게 설명했을 때 그 사람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해야 해요. 공부를 할 때, 스스로 머리가 꼬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덕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볼게요.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문법은 개념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더군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적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음운인가 아닌가 구별할 때, 최소대립쌍 및 상보적 분포의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뜻을 변별해주는가 아닌가'라는 점이죠. 사실 이 개념을 딛고 모든 게 출발하며 여기에서 적용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소대립쌍', '상보적 분포'의 개념을 완전히 숙달해서 어떤 예문이 나와도 그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게 연습했어요.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음운변동의 규칙순을 공부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순서로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한 것이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나 음운론 공부할 때 유용했습니다.

-남에게 설명하듯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스스로를 점검해볼 수도 있고,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며, 뒷보다도 종종 어려워하시는 답안 서술 방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답안을 적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제가 평소에 남에게 설명하듯 공부했기 때문에 답안에도 그렇게 적게 되더군요. 답안지가 어떤 사람의 머릿속이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짧은 문장으로도 명확한 설명이 가능해요.

② 예문에서 이론 도출해내기

⇒ 이걸 이론 공부에 어느 정도 됐을 때 했습니다. 예문은 보통 이론 설명 밑에 있죠. 그런 식으로 보면 그 예문은 '그 이론'에 맞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문만 따로 빼서 적은 뒤, 그 예문에서 제가 뽑아낼 수 있는 모든 문법 이론은 다 뽑아봤습니다. 음운, 형태, 통사론 전 분야에서요. 의미론은 안 했네요 ㅋㅋ 이렇게 하다보면 예문 분석력이 자동으로 길러져요. 공부하는 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ㅋ

③ 기본이론에서 심화로 확장

⇒ 문법 참...세부이론이 많죠...저는 이전에는 질보다 양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만가지 개론서에 나와있는 세부 이론들을 딱딱 긁어모아서(학원가 자료들에 많았습니다....) 다 봤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바느질 하나도 안 되어있는 천조각만 잔뜩 끌어모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천조각들을 하나하나 바느질해서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이론에 집착 안 했고, 기본에서 심화로 나아가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김준쌤 자료를 유용하게 봤습니다. 그 자료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에서 서술절을 공부했다면, 심화에서는 '토키가 앞발이 짧다'와 같은 문장을 왜 학교문법에서 서술절로 보는지, 다른 견해는 뭐가 있는지를 공부한 거죠. 이게 전혀 색다른 것 없는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본에서 서술절에 대해 탄탄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심화이론이 잘 달라붙습니다. 심화이론, 즉 세부이론들만 자꾸 보다 보면 이 '서술절'이라는 화두에 대한 바탕? 본질?이 뭔지 모르게 된달까요. 즉 주어가 두 개 나오는 게 이상하다!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했다는 걸 자꾸 잊게 되고, 서술절, 이중주어설, 보어설...이런 걸 자꾸 외우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본질'을 자꾸 잊는 못된 버릇이 있었어서 πππ 그래서 이 방법이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너무 뻘한 방법인 듯하지만 저에게는 짱이었어요.

④ 기출문제 스스로 분석 및 형태소 분석

⇒ 기출문제에 예문이 많죠? 보물같은 예문이더라고요. 중세는 물론 현대 예문까지도 모조리 다 형태소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 울음소리 한 번 크구나'라는 현대 예문을 '너 울-+-음#소리 한+번 크-+-구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나'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각각 품사가 뭔지 적는 거죠. 엄청엄청엄청 도움돼요. 중세는 말할 것도 없구요. 그리고 객관식의 경우 선다를 일일이 다 분석해서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선다 하나가 고스란히 문제 하나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작년에 제가 가장 열심히 한 게 있다면 이거지 싶습니다.

⑤ 원리 이해시켜주시는 강의

⇒기계적인 반복만 계속한다거나, 암기만 강조하는 강의와는 제가 잘 안 맞아서 저에게 맞는 강의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준쌤 강의 만나고 충격.....나 지금까지 뭐한거니...싶더라고요. 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게 쥘쌤 강의 덕분이었고, 문법에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해야되나...그동안 헛공부 했구나 하고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해야하나...그런 걸 느낀 강의였기 때문에 저에겐 시너지 효과가 컸습니다. 정말 모든 걸 빨아들이듯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개론서나 다른 자료들의 문면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행간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가르쳐주십니다. 그게 저에게는 정말 보물 같았고 너무 좋았어요. 문법을 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재밌어지고 저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졌습니다. 특히 이번 기출문제는 쥘쌤 모의고사 문제들이랑 너무 스타일 비슷해서 시험 보면서 놀랐어요 ㅋㅋㅋㅋ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법 2

① 문법의 체계를 백지에 자주 그렸습니다.

문법은 가장 명확했지만 저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습니다. 너무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품사가 몇 개인지도 몰랐었고, 품사와 문장성분을 혼동하던 것이 처음 제 수준이었습니다ㅠㅠ) 당연히 가장 큰 체계인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이 어떤 관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장성분을 공부하고 있을 때면 갑자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멍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강의를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 백지에 가장 큰 체계를 그리고 그 이후 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담화론 이 네 가지 영역이 무엇을 다루는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계속 뭔가 그리려다가 보니 점점 음운론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생각해보게 되고 그것이 정답이든지 아니든지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통사론은 문장에서 단어가 구, 절을 이루면서 어떠한 관계, 구조를 이루는지 다루는 분야라고 정의를 내리고(수시로 사전을 찾아보거나 책을 들여다 보아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다루게 되는 문장성분은 무엇인지, 문장 성분은 주성분과 부속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을 마인드 맵이나 체계를 그려가며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주로 목차를 보면 이 체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하며 형태론에서 다루었던 품사와 문장성분의 차이를 모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주어와 보조사를 모르는 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그 과정이 문법에서 백지쓰기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② 예문을 통해 규칙을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착각은 '말보다 문법이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칙에서 어긋난 예문은 이해가 가지 않았고 한가지 현상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말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규칙을 담은 문법이 탄생한 것인데 저는 어찌된 일인지 그 반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수와 재수시절에는 문법을 외우고 그 다음 그에 해당하는 예문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연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준선생님을 만나고부터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문을 보고 이 예문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사고 과정대로 공부했던 것이 시험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고였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현대국어의 틀이 잡힌 뒤 중세국어를 보았습니다.

방통대 강의도 사서 들어보고, 표준 중세국어 문법도 들여다 보았지만 현대국어의 틀이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세국어는 우수수 떨어져나갔습니다. 도움이 되었던 방법은 먼저 초반에는 현대국어문법의 체계를 잡는데 집중하면서 중세국어문법의 강독편(나찬연)을 현대국어 해석부분을 쭉 읽어간 것입니다. 해석 부분을 읽으면 등장인물,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높임법을 쓰는 상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형태소 분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국어 교과서가 가장 쉽게 설명이 되어있다고 생각해서 교과서를 보며, 김준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복습하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예문들을 분석했습니다. 고등학교 문법 부분은 주로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을 쉽게 간추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개론서를 보기가 부담스러웠던 저는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주신 자료와 기출문제를 보았습니다. 최대한 양을 줄여서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돌아보면 그마저도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반성이 듭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④기출 문제를 통해 문법의 체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보자마자 척척 개요도 적어내고 키워드도 찾아내면 좋겠지만 기본 문제들조차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많은 개론서를 보거나 자료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1차 합격을 한 해에는 주말 새벽에 문법 기출을 보았습니다. 워낙 배경지식이 없었던 터라 기출문제 답을 친절하게(?)달아준 다른 강사분의 문제집을 사서 외우기도 하고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최종 탈락을 하고 다른 문법 기출집을 사서 보면서 발견한 것은 한 문제에 답이 충돌되는 문제가 꽤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판단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음운론은 말소리(양순음), 형태론과 통사론은 우리말 문법론을 보면서 김준선생님께서 기출을 풀이하시는 사고 과정을 보며 문제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스스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문을 의미 단위로 끊어 조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조건에 해당하는 답을 중요한 단어 혹은 개요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백지쓰기로 문법의 체계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가지 문법 현상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석하는 것이 문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법 3

초수 때 가장 약하고 재미없었던 영역이 바로 문법이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문법 기본서인 '학교교육과 문법교육', '우리말 문법론', '현대문법의 이해' 등을 모두 읽고 손으로 노트 정리까지 했지만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조차 잘 잡히지 않았고 당연히 기출문제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재수 때 공부 방법을 바꾸면서 문법을 공부하며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초수, 재수 때 모두 김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재수 때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간 것은 바로 '체계'를 잡는 과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① 문법에 대한 체계 세우기</p>	<p>초수 때 문법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었기 때문에 제일 취약한 영역이었던 걸 잘 알았지만 4월이 될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준 선생님 강의를 5월부터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p> <p>5월 강의 첫날에 김준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문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교육학과 교육론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에서도 목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준 선생님께서 '형태소'와 관련한 체계를 크게 세우시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흩어져있던 문법 내용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p> <p>그래서 그날부터 문법 기본서를 하나 정해서 김준 선생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형태소, 단어, 품사부터 통사론까지 큰 열개를 짜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정리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니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도 쉽게 되고 문제를 풀 때도 관련된 개념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암기보다 체계를 세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p>
<p>② 문제 풀면서 이론이 적용되는 모습 파악하기</p>	<p>김준 선생님의 문제풀이 반에서 문법 영역별로 문제를 풀고 그 이후에 관련된 이론을 다시 한 번 공부했습니다. 수업 전에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론을 많이 공부했고 이미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면 생각보다 헛갈리고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를 느끼고 난 다음, 수업 때 문제를 함께 풀고, 그 이후에 혼자 공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p>
<p>③ 기출문제 스스로 풀기</p>	<p>수업 시간 틈틈이 기출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초수 때는 기출문제 풀이내용을 자세하게 필기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재수 때는 필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필기에 매달리다 보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자꾸 놓치게 돼서 결국 혼자 공부할 때 필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p>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p>저는 문법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7월부터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써 보며 공부했습니다. 7월부터 시험 전까지 총 5번 이상 답안을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답안을 적을 때는 내용은 부실한데 분량은 말이 안 되게 깁니다. 우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본 다음에, 초수 때 필기해놓은 기출문제 답, 인터넷 검색, 기본서 등을 찾아가며 공부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분량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핵심이 드러나게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p>
<p>④ 질문이 생기면 계속 고민하기</p>	<p>저는 5월부터 김준 선생님의 수업을 직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며 생기는 질문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p> <p>수업을 듣다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매일 가지고 다니는 파일에 붙여놓고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억지로 찾으려하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질문을 보고 고민하고 때로 공부하기가 싫을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듣다가 '아'하며 찾아지게 됩니다. 가끔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선생님께 질문해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질문이 생길 때마다 바로 해결하고자 하기보다는 '자기 고민'의 과정을 거친 것이 문법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힘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p>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법 4

- 김준T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만의 목차 만들기★★★
→선생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목차 만들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이 올해 시험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ㅅ'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예문까지 들어서 설명하고 중세국어와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지만 예문을 주고 '활용양상'이라고 물으면 설명을 주저한다는 점을 목차 만들기를 통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개론서를 읽고 예문분석에만 치중해왔기 때문에 문법에서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했음을 느끼고 목차 만들기를 통해서 범주를 명확히 했습니다.
-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개론서 예문 분석하기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것과 별개로 밴드 스터디를 구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분석할 수 있는 예문의 양을 스터디원들과 정하여 매일매일 분석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개론서를 읽고 예문을 분석했습니다.
- 김준T 기출문제집 활용한 기출문제 분석
→수업시간에 풀어주시는 기출문제 분석을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본 후 선생님의 풀이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문법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기출을 풀 때 답안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보기도 하고 짧게 핵심어로만 표현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구멍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 방통대 교재와 MP3파일을 활용하여 반복적으로 중세국어 듣기

- 반복된 문제풀이로 구멍이 생기지 않게 정리
→김준T이 영역별로 내주시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풀고 인강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용어 정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를 높여가며 심화, 응용된 문제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제들을 풀면서 기본적인 문법지식에 대한 정리가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기출을 풀 수 있는 힘이 더 탄탄하게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개론서 예문 분석하기
- 김준T 기출문제집 활용한 기출문제 분석

-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김준 선생님 강의 직강하기
→김준T의 모의고사와 강의를 저는 이번 시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해주신 문제 뿐 아니라 별도로 만들어서 함께 풀어보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더 작은 구멍들을 촘촘하게 채워나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3월부터 저 나름대로 구멍을 메운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부딪히면서 다시한번 기본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실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김준T이 만들어주신 문제들과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정리했던 부분들이 역시나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 차분히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법을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만 보면 하나도 모르겠는 시간들을 반복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지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개론서 예문 분석하기
- 김준T 기출문제집 활용한 기출문제 분석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법 5

저는 초수 때 가장 애먹은 과목이 문법이었습니다. 정말 기초도 없고 마냥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수 때는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로 주요 용어 찾고 개념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령, 형태소란?, 음운이란? 등등 이렇게 말이죠. 정말 개념만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니 이론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문법은 하노이 탑처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탑이 위로 올라 갈수록 원반이 작아지듯이 처음에는 얇고 너어어어얇게 그러다가 점점 세부적으로 깊이.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처음부터 엑기스만 찾으려고 하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종류의 문법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초수 때는 목 마른 말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냇가로 데려가 주시는 선생님을, 재수 때는 목 마른 말이 물을 마시도록 입에 떠 넣어 주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초수 때 선생님은 문법을 보는 눈을 알려주셨지만 임용 시험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문법은 실제 예문을 바탕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수 때 선생님이 좋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도 없이 물을 떠먹이려고만 하시다 보니 제가 소화도 못했고, 무엇보다 임용 시험 문제에 저어어어얇게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시험에 적합하다 생각이 들 만큼 세부적으로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수 때 만난 선생님이 김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낀 점,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만 아는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김준 선생님은 앞서 두 종류의 선생님을 섞은 분입니다. 정-반-합!! 솔직히 내용을 떠나 때때로 김준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9개월 가량을 직강으로 김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느낀 점은 김준 선생님은 '겉바속촉'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차갑고 까칠하시지만 속으로는 정말 따뜻하고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수업 스타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도 '반'도 아닌 '합'을 이루는 공부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넓게 공부하되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예문을 바탕으로 이론을 이해하고 이론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용 시험에서도 문법 문제는 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문을 바탕으로 이론을 연계하는 공부를 하세요. 저는 참모국어 사이트에서 '표준국어문법/표준중세국어문법'에서 예문만 모아 놓은 자료를 찾아서 예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예문이 이론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예문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등등 예문을 바이블로 활용했습니다. 예문이 중심이 되는 공부를 하세요.

아침, 예문을 바탕으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아무 개론서 하나 선택해서 개론서 목차를 정리해보세요.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면서 마치 문단별 중심내용 찾듯이 목차를 짜보세요. 김준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참고자료에도 김준 선생님께서 직접 짜신 목차가 있습니다.(참고자료로는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참고하라고만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차 짜는 방식은 송헌 선생님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김준 선생님 방식이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송헌 선생님은 김준 선생님의 제자이니깐요! 목차로 문법의 체계와 틀을 잡으시고 예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연계하는 공부를 하세요.

문법에서도 스테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르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내 방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식으로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테디원들과 함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 기출문제의 예문입니다. 실제로 임용처럼 문법 문제를 만들고 출제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예문에 출제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법 스테디는 국어교육론 스테디와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교육론에서는 정답을 찾는 것을 지양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문법에서 답을 서로 비교해서 최대한 정답스러운 것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종합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마치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답도 명백하구요. 물론 국어교육론도 모범답안이 있겠지만 문법처럼 출제자의 의도가 명백하거나 답안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에서만만큼 정답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명확한 이론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법도 결국은 언어 생활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언어적 감각을 키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책을 읽을 때도 '아 이 문장은 문장성분이 어떻게 될까?', '이 단어는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뭘까?', '이 단어를 읽을 때 발음이 왜 이렇게 나지?' 등등 그냥 머리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의문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고 문법 이론과 연계해보세요. 결국 일상 생활에서 떠오르는 의문들이 곧 예문입니다. 그리고 의문들 중에 종종 내가 생각해오, 이건 좋은 질문이다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기출되더라구요.

중세국어문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중세국어는 형태소 분석을 하세요. 그렇게 중세국어의 감각을 익히시면 결국 현대국어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중세국어 어휘와 문장체계에 익숙해지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참모국어 사이트에서 표준중세국어문법 예문을 찾아서 예문들 모조리 형태소 분석했습니다. 형태소 분석한 결과가 정답이든 아니든 내 방식대로 분석하다보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중세국어 두려워 마세요.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교육론 1

1) 국어교육론

아 제가 정말...정말이지 도움이 절실했던 과목입니다. 전공 과목 중에서 가장 싫어하기도 했구요ㅠㅠ 정말 너무 애매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사람 열 받게 하는 과목 아니던가요?ㅠㅠ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다 별로고 자료의 홍수에 빠지게만 만들고ㅠㅠ 그러다가 사막의 오아시스 처럼 송헌쌤이 개설을 해주셔서 진짜 숨통 트인 기분이었어요. 아래에는 그동안 제가 해본 방법들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ㅋㅋ

<실패했던 방법>

① 교육과정 외우기(키워드 정리해서 달달 외우기)

⇒ 이 과목만큼 키워드에 노이로제 걸리는 과목이 있을까요....ㅠ 저는 정말 2014년에 공부하면서 교육과정 키워드는 다 외운 것 같네요. 다른 강사님이 그러라고 시키셨거든요. 답지에 썼느냐 하면, 못 썼습니다. 절대로 생각이 안 나더군요.

② 아무 생각 없이 이론 외우기(예를 들어 토의자의 역할이라든가, 공감적 듣기에서 격려하기의 기술을 달달 외우는 등의...)

⇒ 암기는 공부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기계적 암기는 정말 독이예요 ㅠㅠ 사고를 감히게 만들고, 아무리 외워도 답지에 써지질 않는 모순이 발생하더라고요.

③ 학원강사님이 주는 자료 빠짐없이 다 보기(이전에 들었던 다른 강사님이요)

⇒ 제 고시원에 쌓여 있던 자료의 산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ㅋㅋㅋ 정말 학원 강사님들이 주는 자료 너무나 많죠... 이전까지는 욕심에 다 받아와서 다 봤는데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시간만 잡아먹고 날아가버렸습니다.

④ 기출문제 허당 분석

⇒ 제가 이전에 했던 기출문제 분석이란 어땠냐면요. 먼저 문제를 잘라서 삼공바인더에 붙여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다룬 모든 이론을 다 공백에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판적 독해에 관한 문제라면, 문제 분석은 대강 하고 비판적 독해에 관한 모든 이론을 다 옆에다 적고 잘라 붙이고....그랬던 거죠. 그러니 정작 이 문제가 뭘 물어보려는 거였는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단지 또다른 이론 공부만 하고 있던군요. 기출문제가 등대가 되어주는 건데 저는 그 등대의 불빛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던 거죠 ㅋ

⑤ 지도서 및 교과서 줄줄 읽듯이 보기

⇒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저만 느낀건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이론 공부 신나게 하다가 지도서나 교과서 보면...아이들이 보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너무 시시하고 뭘 봐야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대강 봤었어요.

위의 다섯가지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성공했던 방법> - 송헌쌤께 배운 방법들입니다.

① 개론서 목차정리

⇒ 최미숙 <국어교육의 이해>로 목차를 정리했습니다. 책에 보면 앞에 큰 목차 있죠? 그걸 적은 다음에 책을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했어요. 책 안은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서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아개념'에 관한 항목인데 제목은 '자아개념'만 있고 그 안에 부정적, 긍정적 자아개념이 있다면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순순환 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세부 목차를 만들어 적은 것이죠. 그러면 목차가 짝악 길어져요. 체계를 잡기에 정말 좋은 방법이고 송헌쌤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구조도라든가 교육과정으로 체계를 잡으면 안 잡히더라고요...체계라는 것이 없으므로 ㅋㅋㅋㅋ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서인 책 한권을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화법교육론>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작문교육론 독서교육론은 하다가 포기....ㅋㅋㅋㅋ 개론서는 이렇게 두 권 봤네요.

② 교육과정 스스로 정리하기

⇒ 교육과정을 스스로 정리할 생각을 대체 왜 못했을까요? ππ 전반적으로 제가 위에 국교론의 패인을 장황히 적었지만 생각해보니 한마디로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도움은 받되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육과정 정리 이렇게 했습니다.

-성취기준 적고

-그 밑에 해설 정말 짧죠? ㅋ 그걸 다시 요약했어요. 번호 붙여가면서요. 약간 써머리 정리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정리는 정리인데...정독을 위한 정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송헌쌤께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만 써봤어요. 정리본을 예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요약하며 읽고 정독하려는 목적이었거든요.

③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 분석+문제 분석+의도 파악하기

⇒ 작년에 공부하면서는 기출문제에서 다룬 이론을 옆에다 또 정리하는 짓은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이론은 그냥 따로 이론으로 공부했어요. 저만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단권화 욕심이 있지 않아요?ㅋㅋㅋ 모든 걸 한 권에 그냥 막 때려 박고 싶어지죠 ㅋㅋ 그게 독이라는 걸 알고 저는 그냥 단권화 욕심은 버렸습니다. 이론은 이론대로 하고, 기출문제는 따로 봤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문제마다 지문이 있지요. 모든 지문을 다 분석했습니다. 문단별로 중심내용을 찾고 요약했어요. 혹은 비교대조구조의 글일 경우 표를 활용해 정리하기도 하면서 지문을 정말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이게 참...정말 빨갸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1차를 나름대로 높은 점수 맞은 이유가 100프로 이 지문분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정성껏 열심히 했습니다.

④ 이론은 아주 핵심만 간단하게

⇒ 과거에 저는 이론에 치여서 아주 죽을 뻔했더랬죠....그런데 웬걸, 송헌쌤 강의 듣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고 스스로 해보니 정말 국교론만큼 이론이 적은 과목이 없더군요. 덕분에 올해는 아주 가뻔했어요. 정말 국어임용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아주 기본 이론만 공부했어요.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은 '베레이터의 어찌구'하는 이론만 빼고는 거의 다 봤구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화법 교육론을 좀 본 정도?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⑤ 지도서와 교과서를 이론과 연계하기

⇒ 이걸 제가 송헌쌤 자료 덕을 100프로 봤습니다. 이론은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실현되어 있고, 이 추상적인 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어떤 제재나 학습활동을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였어요. 저에게는 보물 같은 자료였습니다. 내내 끼고 살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어요.

⑥ 지문분석 지문분석 지문분석 지문분석x100

⇒ 수능을 약 10개년어치 봤어요. 과학지문 빼고 인문사회지문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앞부분에 화독작 문제에 나온 지문도 다 분석했어요. 문단별로 제목을 붙이고 요약하는 연습이요. 그러다보면 이 글에서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의도가 자연히 보이더군요. 그리고 화독작 수능문제같은 경우, 아래 선다를 가리고 서술형 문제로 만들어서 답을 써보고 정답선다와 비교해서 내 답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연습을 했어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⑦ 송헌쌤 수업

⇒ 다 필요없고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ㅋㅋㅋㅋ너무 솔직한가ㅋㅋㅋ 저랑 너무너무 잘 맞았고, 온통 추상적이기만 한 국교론 내용을 정말 잘 녹여서 전달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어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도 쌤께 다 배웠구요. 다른 강사님 수업 들을 때는 진짜 국교론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송헌쌤 수업 들으면서는 심지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ㅋㅋ 진짜 별 것도 아닌데 별 것이나 되는 것처럼 부풀리는 강의는 갈 길을 멀게 만들어요 ππππ 국교론 별거 아니에요! 그걸 송헌쌤 수업 듣고 확 느꼈네요 ㅋㅋ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교육론 2

① 국어교육론의 틀을 세웠습니다.

'국어교육의 이해'라는 책의 화법, 독서, 작문 부분을 1월과 2월에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혀 체계가 없는 성취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취기준은 제멋대로 나열되어 있고 이마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순서가 바뀝니다. 그런데 국어교육의 이해를 통해 각 과목의 틀을 세워놓으니 기출문제, 교육과정, 교과서를 모두 그 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단단히 하면 그 위에 집에 높게 올라가도 끄덕없는 것처럼 1,2월의 골격 만들기가 있었기에 국어교육론 공부와 살이 되어 붙을 수 있었고 무엇을 하는 과목인지조차 불분명했던 국교론을 한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② 수많은 국교론 이론들은 예문을 통해 이해했습니다.

국어교육론에서는 1차 시험에서 이론과 관련하여 꼭 몇 문제씩 출제됩니다. 토론 유형, 무슨 격률, 다양한 원리들 게다가 수업 모형 등등은 개수도 많습니다. 초수와 재수시절에는 강사 분이 밑줄 쳐준 개론서의 내용을 달달 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기출문제는 풀리지도 않았고 왜 외우고 있는지 스스로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송헌선생님의 사고 구술을 보며 스스로 교과서 예문을 분석하고 그예문을 통해 이론들을 이해하니 기출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반대신 문식 토론을 공부한다면 먼저 교과서에서 토론의 구체적 예가 나온 지문을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기 시작하자 이론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시험장에서 이론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제시된 예문을 통해 내용을 도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③ 성취기준을 반복해서 읽고 지도서와 교과서에 어떻게 실현되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성취기준-> 지도서->교과서의 연결고리의 중요성을 2차 시험 전날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게 송헌선생님께서 입이 닳도록 성취기준에 빈칸을 뚫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지, 성취기준을 순서대로 외우는 것이 부질없다고 하셨는지 말입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에서 성취기준을 순서대로 외워서 쓰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단 한문제도 그런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차도 2차 시험에서도 성취기준은 문제에 제시 됩니다. 심지어 그 성취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예문이나 교과서 지문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취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2차에서 눈뜨 장님이 됩니다. 때문에 1차 공부는 2차 공부와 다른 공부가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성취기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2차 수업실연 시 내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발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뒤늦게 그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교단에서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다보면 보면 가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교과서 지문을 분석하며 독해력을 길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수능 지문을 분석하기도 하고, EBS교재를 풀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1년이라는 시간은 교과서 지문을 다 분석하기에도 벅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가장 중점을 두어서 했고 그 후에는 기출 지문을 분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요약한 내용을 가상의 학생에게 설명해보기도 하고 한 줄로 써보기도 하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였습니다. 독해력은 연산처럼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교과서 지문을 분석해도 독해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답답할 때도 많고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찾고 싶은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결국 가장 바르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임을 믿었습니다. 국어교사라면 평생 길러야 할 능력인데 고작 1~2년으로 늘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기로 스스로 계속해서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저만의 답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눈으로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문제 유형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아는 것이 기출 문제에 대해 배경지식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헌선생님께서 기출 문제를 사고 구술해주실 때 사고의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익히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가 눈에 익고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익힌 7월 무렵부터 스스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하나 하나 답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발문을 의미 단위로 끊고 그 속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번호를 달았습니다. 그 이후 지문이 있다면 지문도 각 문단 별로 요약하였고 조건에 답이 되는 부분은 밑줄을 치거나 조건 번호와 연관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11월 초에야 나만의 기출문제 분석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교육론 3

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과 '지문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기 전에 교육론에는 암기해야 하는 이론들이 많다는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교육과정을 달달 외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송헌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함께 따라가면서 간결하고 점점 단단해지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p>① 국어교육의 이해 목차 정리</p>	<p>송헌 선생님이 상반기 수업에서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저는 초수 때, 재수 때 총 2번 했습니다. 교육론 공부의 뼈대를 잡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교육론의 뼈대를 머릿속에 그린 후에 교육과정의 세부 내용들을 공부하시면 체계가 잡히실 겁니다.</p>
<p>② 교육과정&교과서 지문 독해하기</p>	<p>'교육과정&교과서'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화법, 작문, 독서 영역별로 교과서의 수많은 지문들을 '직접' 독해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육과정 상의 개념과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교육과정을 암기해서 쏟아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각 성취기준과 부합되는 교과서의 지문들을 직접 독해해가면서 '독해력'과 '교육과정의 핵심'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아주 추천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반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혼자 힘으로, 찬찬히 독해하기 • 김준&송헌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수험생들의 지문독해 구경하기 ('다들 어려워하는구나'하는 위로도 얻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하는 팁도!) • 속도가 붙으면, 지문과 해당 성취기준과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며 독해하기 • 일반적 형태의 지문 뿐만 아니라 토론, 토의, 대화, 도표까지 독해하기
<p>③ 기출문제 공부하기</p>	<p>초수 때와 재수 때 공부 방법을 비교해보면, '기출 분석'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수 때는 기출문제의 답을 잘 마련하고자 했었다면, 재수 때는 기출문제를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과 이에 딱 맞는 이론을 찾는 데에 매몰되면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은 <지문 독해하기, 문제의 의도 파악하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론 찾으려 하지 않기>였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4년도 기출문제까지 모두 '문제, 조건, 지문'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는 직강 수업 후 있는 스터디를 통해 많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매주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지문 뿐만 아니라 문제와 조건도 분석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기출문제 공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와 조건을 꼼꼼하게 읽고 다시 보고자 한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2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 이미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고 기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출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대충 보고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시험 전까지 기출을 5번 정도 공부했는데 문제와 조건을 항상 다시 확인하고 풀어보면서 최대한 문제를 낫설게, 새롭게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 답을 찾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문제의 의도 고민하기
 - 정말 잘 안 되고 힘들었던 부분입니다ππ 당장 완벽한 답을 찾고 싶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문제의 의도, 즉 문제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기출문제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도깨비 방망이 같은 이론 찾으려 하지 않기
 - 처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관련된 이론들을 문제 옆에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 올라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풀다보면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이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딱 맞는 이론을 찾으려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풀고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한 번 들춰보고 읽어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교육론 4

- 암기력은 좋아서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이 지식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 국교론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송헌T의 강의는 개론서 수준의 지식과 이것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는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강의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음
- '분석력'은 문학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교론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강의 자료로 주신 학습활동 지문들을 하루에 2개씩 분석해 나감★★★
⇒ 처음에는 학습활동 지문을 분석하는 작업을 쉽게 생각했지만 이 방법이 실제 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글을 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읽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을 통해 독해력, 분석력을 높이면 실제 시험장에서 지문을 한 번에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시범으로 분석해 주신 것을 비교해 보고 동일한 글을 읽어도 분석 수준, 독해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며 충격처럼 깨닫고 1년 내내 분석은 절대 미루지 않고 다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뒤가 다르고 두 달 뒤가 확실히 다릅니다!!
⇒ 학습활동 지문을 분석한 후에 학습활동에 대한 답도 채워보고 선생님이 나눠주신 답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저의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함께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2011개정교육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나만의 방식으로 요약해보기
→흔히 다른 사람이 정리해 놓은 교육과정을 암기하기에 바쁘지만 실제로 요약하고 정리해보면 잘 안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교육과정을 암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분석력을 키우고 국교론의 범위를 한 눈에 보기 위한 작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 기출 풀이하기
⇒ 기출을 항상 들여다보았습니다. 4년을 본 기출인데도 안 풀리는 문제는 계속 어렵고 쉽게 생각했던 문제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잘못된 답을 도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여러 개론서들을 읽어 나가면서 기출 문제 속에서 많은 정보를 뽑아내 보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또한 기출에 대한 저만의 답을 길게도 써보고 짧게도 써보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앎인가에 대해 점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통해 범위를 정해 문제를 풀어오고 피드백하며 생각을 나누는 방법을 병행하여 기출을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 7-9월 강의는 핵심 중에 핵심!!
→ 정말 좋았던 강의였습니다. 기출을 풀면서도 기출에 대한 갈증을 느꼈었는데, 7-9월 강의가 기출을 변형만 문제들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을 낱알이 분해해서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강으로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강의가 밀릴 염려가 있어서 밴드스터디를 통해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직강의 진도에 맞춰서 매주 풀어나갔습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 날에는 3시간이 넘게도 걸렸지만 선생님께서 내주신 문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풀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풀어냈습니다. 솔직히 매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문제를 풀다가 울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고 나면 기출을 보는 눈이 생김을 느꼈습니다.

→ 장수생이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봤었고 노량진가에서 쏟아지는 기출문제집을 통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제 생각과 다른 선생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하고 반감도 느끼는 과정도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것이 강의를 듣고 인지부조화를 거치고 복습을 하기 위해 다시 문제를 보면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고 선생님의 설명이 맞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7-9월 강의를 통해서 기출에 대한 사고가 정말 많이 교정되었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에 많은 도움을 받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지문 분석을 끊임없이!!

→ 밴드 스터디를 통해 끊임없이 지문분석을 했습니다. 교과서 지문 분석을 다 한 후에는 7-9월 문제로 제시된 지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7-9월 문제는 기출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출을 보는 새로운 눈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지문 분석을 제대로 하자 이해되고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문분석을 시험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모의고사 지문은 무조건 분석!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직강을 듣기가 어려워서 시험은 학원에서 보고 해설 강의는 인강으로 보았습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강의를 듣고 채점을 하여 점수를 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모의고사로 나온 지문들에 대해 모두 분석했습니다. 문제 지문들을 분석하다보니 모의고사 문제에 관한 복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 3-9월 자료 반복하기

→3-6월 동안 수업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기시켰습니다.

→7-9월의 자료는 기출보다 더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에는 기출대신 7-9월 문제풀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선생님처럼 사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국어교육론 5

저는 학부 시절 운 좋게 저희 학교 교수님들 중에 국어교육론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지만 교육과정을 살펴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라든지 교과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육론은 2009/2015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송헌 선생님께서 편집해주시는 교육과정&교과서 자료(3월~6월)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pdf 자료나 한글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구요. 그래서 송헌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정말로 '분석'했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깃발이라고 생각하고, 성취기준을 교과서에서 풀어 놓은 자료를 찾아서 문단을 나누어보고, 문단별로 중심내용 찾아보고, 중심내용을 모아 글 구조화시켜보고.... 어디서 들어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송헌 선생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이 무슨 공부냐, 이론이나 더 공부하자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수, 재수 때 공부했던 다른 강사분의 책도 열어보고 정리하고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야 그것이 이론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용 시험 문제를 보면 이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답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나오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기출문제로 빈출되었던 것이 나옵니다. 가령, 작문에서 형식주의 작문이론,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등. 기출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송헌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추가이론자료를 보면 모두 숙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참, 그리고 저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전공서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들이 사길래 따라서 사 본 문법책(표준국어문법론, 우리말문법론 등)조차 가볍게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그것도 궁금한 부분을 사전처럼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송헌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업에서도 송헌 선생님께서 이론을 아주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잘 그려주십니다. 송헌·김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론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노랑진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 동기, 선배, 후배들과 이야기 하다보면 절대 이론에서 뒤쳐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이론에 대해 질문하고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훨씬 많습니다. 이론 수업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부족하거나 뒤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실제로 3수때 송헌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론이 부족한 것 같다면 이 탈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ㅠㅠ

길게 말씀드렸지만 송헌 선생님의 자료를 분석하고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고,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시면 국어교육론은 절반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무엇일까요? 네,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는 혼자서 푸시겠지만 진정한 기출분석의 하이라이트는 기출문제 풀고 스터디원들과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스터디원들과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 나는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알 수 있어서 묻고 더블로 가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스터디원들과 기출분석을 할 때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정답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을 찾으려다보면 서로 자기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우기게 되고 무엇보다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출 스테디의 목적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디원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동료이자 동반자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세요.

자, 이렇게 송헌 선생님의 자료/수업 & 기출 분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소위 '국어교육론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교육론을 보는 눈'은 쉽게 말하면 '독해력'입니다. 전공과목 당 90분 남짓 하는 임용 시험에서 10문제가 훨씬 넘는 문제를 푸려면 한 문제당 10분도 촉박합니다.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속도, 속도를 높이려면 결국 독해력이 요구됩니다. 정확하게 글(제시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보기>나 <작성방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해력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저는 평소에 공부하는 게 힘들고 지친다고 생각되면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좋고 자기 계발서도 좋고 신문기사도 좋고 텍스트가 길고 충분한 내용을 갖춘 글을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텍스트를 읽는 것도 지겹고 진절머리가 난다싶을 때는 영화라도 봤습니다. 결국 영화도 내용을 이해하려면 감독의 의도를 '독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영화감상은 머리도 식힐 겸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국어교육론은 독서, 화법, 작문과 같이 실제 언어생활을 이론화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의 언어생활과 연관 지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가볍게 읽어만 주세요.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합격했구나 생각하시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학 1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에요. 늘 공부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고 가슴이 떨렸던 과목 ㅋㅋㅋ

<실패했던 방법>

① 해법 자습서만 봄

⇒ 그래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지만 이 과목도 열심히 샅질 했었습니다...해법 자습서를 참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돌리지도 않았으면서 돌리긴 열심히 돌렸죠 ㅋㅋㅋ 놀라운 건 1주일만 지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조차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정작 문제로 풀어보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전 자습서 혐오자가 돼서 작년에는 자습서를 아예 막판에 며칠정도 그냥 후루룩 훑듯이만 봤습니다. 그마저도 진저리가 나서 다 보지도 않았어요...ㅋ 자습서의 가장 큰 함정은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잃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습서에 나와있는 정련된 언어를 보면 위압감이 들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쁜 말은 못쓰거든요. 그러다보니 어떻게 된다? 네, 외웁니다 ㅋ ㅋ ㅋ 문학은 외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있을까요. 막말로 <유리에게>같은 시가 나오면 어떡하나...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습서...아...실려있는 작품 수도 너무 적고 빈약한데 왜 그렇게 목숨걸고 봤는지 참...ㅠㅠㅠ

② 기출문제 거의 안 봄

⇒ 할 말이 없네요. 기출문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자습서 위주의 공부만 하다가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병찌실 듯 싶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여겨지고(특히 객관식) 그래서 기출을 점점 손에서 놔죠...ㅋㅋ

③ 개론서 파기

⇒ 한국문학통사, 한국현대문학사...많이 봤어요. 중요한 책들이긴 하지만 글썩요...이런 책들을 보는 이유는 문학사를 잡기 위해서가 큰데, 그냥 줄줄 읽거나 정리만 하고 있으니 문학사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문학사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의 개론서들은 읽으면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기만 했고 정작 문학사를 잡는 데는 큰 도움은 못됐던 것 같습니다.

<성공했던 방법> - 송헌쌤이 시키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① 작품분석x100

⇒ 송헌쌤 작품분석 강조 많이 하시죠. 낯선 공부방법이어서 거부감이 컸을 법도 한데, 전 그때 너무나 절실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분석하기도 해서 좀 많이 헤맸지만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시 한 편, 일주일에 소설 한 두편 정도 분석했어요. 물론 시 한 편 잡고 일주일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의 경우에는 그랬어요...며칠씩 걸리고 막 ㅠㅠㅠ 그래도 쉽게 해설을 찾아보지 않고 최대한 제가 스스로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의 경우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그래서 대처방식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내용 중심으로 분석해서 역시나 이 시에 대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가 뭘 노래하는 시인지 가슴에 새겨지도록 공부했어요. 그러다보니 외운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제 언어로 답이 비교적 잘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나오더군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던지 ㅋㅋㅋ 그리고 소설은 인물 사건 서술자 위주로 분석했어요. 누가 나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서술자는 누구인지요. 줄거리를 요약하는 식으로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송헌쌤 틀에 맞춰서 한 거예요 ㅋㅋ 그 틀 짱 좋아요.

작품분석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분석한 작품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스스로 이 시의 주제를 찾아냈다 하면 그 시의 주제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습서를 아무리 돌려도 모르겠던 시의 주제가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진짜 짱이에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제가 외운 건 영혼없이 가르치겠지만 제가 분석한 건 영혼을 담아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유익한 방법입니다.

오래 걸리느냐? 네, 처음에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몹시 짜증납니다. 그러나 한 번 제대로 해둔 작품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엄청 빠른 길입니다. 하반기쯤 돼서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아 정말 빠른 길이구나, 이게. 자습서며 이론서, 학습활동 모음집만 봤다면 빙빙 돌아왔을 길을 한 방에 가게 되니, 힘들고 더디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빠릅니다. 그 어떤 방법보다 빨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송헌쌤 아니었으면 영원히 이런 식으로는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소름끼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문학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꼭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ππππ

② 기출문제 철저히 분석

⇒ 쌤이 권해주신 대로 기출문제로 나온 작품을 먼저 분석한 뒤 해당 문제를 봤습니다. 덕분에 객관식의 경우 작품을 다섯 개도 넘게 분석한 뒤에야 겨우 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디. 작품분석을 하고 난 뒤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뭘 물어보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그 맛을 한번 알고 난 뒤로는 허투루 안 봐지더군요. 그리고 작품분석한 뒤 기출문제를 볼 때는, 기출문제에 잘려서 실린 지문을 다시한 번 요약하듯이 지문분석을 했어요. 문학 문제는 지문에서 끌어다 쓸 게 참 많은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지문은 대강 눈으로 쓱 훑고 외우는 걸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다간 큰일이 납니다...ππππ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도 본능적으로 지문을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문제의 지문을 다 분석했습니다. 선다형이 왜 맞고 틀리는지도 빠짐없이 했구요.

③ 지도서 교과서 참고하기(학습활동 모음집 안 봤습니다)

⇒ 학습활동 모음집 열라 싫어요...대체 무슨 맥락에서 그 학습활동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취기준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에 연관된 학습활동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맥락적으로 봤습니다. 막 분석적으로 달달 봤다기보다는 그냥 쓱 훑듯이 봤어요. 아, 이 성취기준을 위해 이 작품을 선택했구나, 다른 작품도 선택될 수 있겠구나, 어떤 작품이 나오든 일단 내용파악하는 학습활동부터 하는구나, 목표활동에서는 이걸 물어보는구나, 결국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봤습니다. 도움이 돼요.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내면화시키는 학습활동이라든지, 자기 성찰하게 하는 학습활동, 공감해보기...이런 것들은 일단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것들인데 종종 물어보니(이번 논술형에서도 나왔죠) 참고는 해야겠다 하고 봤습니다. 송헌쌤 자료로 봤고 이것도 송헌쌤 국교론 자료처럼 끼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④ 문학사 스토리텔링

⇒ 위에서도 말한 건데, 문학사를 외우려고 하지 않고 역사와 연관지어서 거대한 대서사시 읊는 옛날이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야기 할머니가 된 기분으로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과 부원세력이 땅을 막 대토지를 막 소유하고 지들끼리 다 해먹고 놀고먹고 하니까 열받는 사람들이 있었겠어 안 있었겠어? 있었지, 개네가 신흥사대부인데 나중에 나라 옳고 조선을 세우는 거야. 권문세족은 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민간의 노래를 가져다가 잔치하는 데 쓴 거야. 그게 고려속요야. 신흥사대부는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막 경기체가 같은 걸 쓴 거야. 자부심 찢지. 이런 식으로요 ㅋㅋㅋㅋㅋ 참 저급하지만...효과 직빵입니다. 왜 이런 갈래가 나왔고 그 갈래에서 주로 노래하는 게 뭔지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바로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특정 작품이 어느 시대의 작품인지가 자동으로 들러붙습니다. 쌤이 자주 말씀하시는 빨랫줄에 빨래집게로 작품 걸어두기 방법이에요 ㅋㅋㅋ

⑤ 송헌쌤 수업

⇒ 위의 방법 모두 송헌쌤께 다 배워서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합격수기 장황하게 쓰고 있긴 한데요. 그냥 송헌쌤과 김준쌤께서 시키는 걸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믿고 따라가시길 바라요 ㅋㅋ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학 2

① 문학사를 정리하고 스토리텔링 하였습니다.

문학도 역시 큰 틀을 세워두면 그 안에 작품들을 이해할 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때 역사학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역사를 꿰려고 하지는 않았고 삼국시대에 지배층은 누구였고, 지배이념은 무엇이었으며, 그 상황에서 대표적인 문학 갈래는 무엇이 있었는지 시대상황과 요구와 관련하여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곤 했습니다.

문학사를 스토리텔링하기 위해서 우선 문학사 강의가 꼭 필요합니다. 송헌선생님의 문학사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만으로도 문학사는 차고 넘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이 너무 막막해서 여러 합격수기를 뒤지다가 이 강의의 명성을 접하였습니다. 문학사 강의는 1,2월 국교론과 문학 패키지 강의를 신청하면 주는 무료 강의였습니다. 저는 이 무료 강의를 들으려 1,2월 강의를 신청했었습니다. 이때 국교론 강의는 이미 다른 강사분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학사 강의에서 신세계를 만나고 문학과 교육론에도 궁금증이 생겨 문학, 교육론 첫 강의를 들어 보니 바로 제가 찾아 헤매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준선생님이 문법 강의도 신청해서 듣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유레카!를 외치고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② 문학 작품은 온 작품을 읽었습니다. .

저는 초수와 재수 시절에 소설 작품은 줄거리 요약본으로 읽었습니다. 시는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해법 자습서에 정리된 것을 읽고 외웠습니다. 그런 공부를 하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다른 수험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강사 분도 그런 방법으로 수업하셨기에 그 고통의 공부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송헌선생님은 문학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거나 평일에 시간을 쪼개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빌린 책은 어찌나 소중한지 내가 선택한 그 책은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현대소설은 먼저 처음에는 쪽 읽어가며 등장인물, 줄거리 등을 파악하며 읽었고 다시 한 번 읽을 때는 소설을 분석하는 틀을 워드로 채워가며 분석했습니다. 어느 때는 이 과정을 하느라 하루 꼬박 할애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험공부는 지치고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컴퓨터 파일에 쌓여가는 작품분석은 한 칸에 늘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현대시 분석은 단어 찾기를 포함해서 분석 틀을 이용해 분석하는데 3~4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작품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전 소설과 고전시가는 제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고전 소설은 읽으면서 단어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분석을 선택해서 몇 개만 하고 나머지 작품은 읽고 내용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작품을 줄거리 요약이나 자투리로 보지 않고, 전체를 읽으니 작품의 전체 맥락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고전 산문 기출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전시가 역시 분석틀에 넣는 과정은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어가 벽이었습니다.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현대 해석을 읽고 현대시와 같이 화자, 상황, 정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시를 분석하며 평평 오열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처지 속에서 나를 보았거나 내 과거를 본 경우였습니다. 가장 막막했던 문학인데 작품을 하나하나 읽으니 수험생활의 활력이 되었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고, 치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작품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야말로 시험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든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③기출문제는 등대로 삼았습니다.

연도별로 기출되었던 작품과 작가를 나열해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레 겁먹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고전의 경우 나왔던 작가는 거의 고정이 되어있고 갈래 역시도 매년 돌아가며 나옵니다. 현대의 경우 생각보다 낫익은 단골 작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참신한 작가와 작품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기를 주어 이해를 도와주거나 조건을 단순하게 줍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공부도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을 보는 눈'에 각 영역별 기출이 된 작품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틈 날 때, 심심할 때 수시로 보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외쳐보곤 했습니다.

문학은 첫 해부터 지금까지 문제의 질이 높다는 말씀을 송헌선생님께서 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출풀이에 신경을 썼던 영역인데 문학은 첫해부터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역시 발문을 의미 단위를 끊고 조건의 개수를 찾은 뒤 작품은 기존에 분석하던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객관식 시절 문제의 선지는 출제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단서였기 때문에 의미단위로 끊고 O,X표시를 해가며 워드 작업을 했습니다. 문학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혼자 하기에 힘든 부분이 많아서 '출제자의 눈'과 저의 답을 대조하거나 '출제자의 눈'을 먼저 읽고 그 후에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학 3

문학도 교육론 공부와 일맥상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p>① 문학작품 직접 읽고 분석하기</p>	<p>처음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소설은 분량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시 한편을 분석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처음 현대시를 분석할 때, 현대소설을 분석할 때 등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편, 두 편 직접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p> <p>특별한 방법은 없고 작품을 읽고 송헌 선생님이 카페에 올려주신 분석표를 따라서 성실하게 분석했습니다. 9월까지의 수업에서 다른 작품과 기출문제에서 다른 작품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분석하였고, 10월부터 시험 전까지는 '작품을 보는 눈' 교재를 거꾸로 읽어가면서 눈으로 분석했습니다.</p>
<p>② 기출 분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 수업시간 중간 중간에 풀어주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고, 객관식 기출은 공부하기가 싫어서 객관식을 제외한 기출문제를 대충 보며 공부했습니다. 교육론은 직강을 들으면서 스테디를 했기 때문에 꾸준히 기출문제를 공부했지만, 문학은 그렇지 못했습니다ㅠㅠ • 문학 기출문제 분석하기 : 9월 문제풀이반을 들으면서 문학 기출에 너무 소홀했던 걸 깨닫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제풀이 때 풀었던 조금 변형된 기출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혼자서 최근 기출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풀었습니다. 교육론 기출문제 분석 때처럼 문제와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려진 지문이지만 문제의 의도를 생각하며 분석했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워드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간략하게 손으로 적어가며 분석했습니다. • 기출문제 스스로 답 적어보기 :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적어보는 시간을 9월부터 꾸준히 가졌습니다. 문제풀이반을 들으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반영해서 답을 쓰는 것에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3번 정도, 최근 기출은 그 이상 반복하면서 기출문제에 답을 써보며 공부했는데, 처음에는 분량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인데 10줄이나 되는 답안이 나오니까 허허. 그래도 그렇게 기출문제를 한 번 쪽 써보고 나서 2, 3번째 풀어볼 때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고민하게 되고 나름대로 깔끔한 답을 구성하게 됩니다.
<p>③ 문학사 흐름 파악하기</p>	<p>재수 때 1-2월 수업을 인터넷으로 수강하면서 문학사 강의를 들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 시기에 문학사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며 나름대로 체계화하여 정리한다면, 이후 문학공부에 큰</p>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p>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p> <p>저는 초반에 이 작업을 하지 못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학 수업 중간 중간에 설명해주시는 문학사 흐름을 토대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문학사를 모조리 다 외워버리겠다는 생각보다는 흐름을 이해하고 머릿속에 작품을 걸 수 있는 줄을 펼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p>
--	---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학 4

- 송헌T 문학 강의
- 밴드 스테디를 통해 <작품을 보는 눈 현대시>에 있는 작품을 모두 분석을 함
 - 하루에 5개씩 일주일에 6일, 틀에 맞게 시를 한줄 씩 세세하게 분석 후 교재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 다른 색으로 채우기
 - ⇒ 처음에는 시를 한 줄씩 분석하는 것도 낯설었고 내 답이 혹시 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분석하고 선생님의 분석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한 줄씩 분석하다보니 이전에 시의 내용 파악에서 놓쳤던 부분이 많았음을 알게 되고 화자의 정서, 상황 등 시의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도 모두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어 의미를 다 아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의아했지만 단어를 찾기 전과 후는 명확히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단어가 많고, 단어를 찾은 후 시의 내용,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파악이 더 쉬움을 느꼈습니다.
- 스테디를 통해 문학관련 개론서 읽기&일주일에 3작품씩 시 분석하기
 - 정해진 개론서를 범위에 맞게 읽어오고 각자 부분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스테디 시간을 짧게 잡았습니다.
 - 매일매일 시 분석을 밴드 스테디로 해 나가면서 일주일에 3작품에서 많게는 5작품씩 <한국 현대시 500선 하>에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와서 서로 풀어보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 밴드 스테디를 통해 하루에 현대시 5개씩 작품분석을 계속 함. <작품을 보는 눈 현대시>에 있는 작품이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분석→첫 번째 분석할 때보다 시를 풍부하게 해석하게 됨.
- 현대 소설은 선생님이 수업해 주신 작품은 필수로 읽고 분석함.
 - 현대 소설을 빌려서 전문을 읽고, 분석틀에 맞게 분석한 후에 선생님의 분석자료와 비교했습니다.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니 인물의 내용 이해가 더 쉽고 분명해 졌습니다. 또한 인물들의 행동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냥 지나쳤을 행동, 심리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작품을 보는 눈 현대소설>에 실린 이해와 감상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다보니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계속하다보니 기출 지문을 읽을 때, 새로운 지문이 나올 때에도 인물들의 관계, 행동, 사건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 현대 소설에서도 단어 찾기는 계속.
 - 그 전에는 문맥으로만 파악하고 넘어간 적이 많았는데 단어를 하나씩 다 찾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작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무조건 단어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 스테디를 통해 개론서 읽기 & 현대시분석 & 현대 소설 분석
 - 3월과 마찬가지로 강의 진도에 맞추어서 밴드 스테디로 작품들을 하루하루 분석을 해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스테디를 통해 개론서 읽어오고 설명하기, 현대시 분석하기(일주일에 3개), 현대소설 분석하기(일주일에 2개)를 했습니다.
- 현대시 하루에 2개씩 분석 + 현대소설 일주일에 2작품 + 고전문(일주일에 선생님이 수업해주신 모든 작품 다 분석)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 현대시와 다르지 않음. 그러나 고전문문은 현대어 해석이 필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대어로 풀이해서 써보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현대시 분석과 똑같이 한 줄 씩 파악하다보면 내용 간 함축된 내용 파악이 쉬웠습니다. 고전문문은 현대어 해석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이 방식대로 고전 운문을 분석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에 나온 누항사 문제 못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스터디를 통해 개론서 읽기 & 현대시분석 & 현대 소설 분석

- 현대시 하루에 2개 + 현대 소설 일주일에 2작품 + 고전문문(교재에 있는 작품들 하루에 3개씩 분석)+고전산문(수업시간에 해 주신 작품 다 읽고 분석)
- 고전산문도 현대소설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함
- 스터디를 통해 개론서 읽기 & 현대시분석 & 현대 소설 분석

- 현대시 하루에 2개씩 분석 + 현대 소설 일주일에 2작품 + 고전문문(3개씩) + 고전산문(일주일에 2개) + 송헌T 문제풀이 인강 기출 완전 정복
- 7-9월 강의 듣기 전 무료로 제공되는 문학사 강의, 기출풀이 강의는 필수!★★★★★
- '7-9월 문제 = 기출' 하나의 조건도 놓치지 않고 풀기
→매주 올면서 7-9월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고전문문을 현대어로 해석하라는 조건이 있으면 3시간 넘게도 풀었습니다. 그래도 조건 하나 그냥 넘기지 않고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전의 경우 눈으로만 작품을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조건을 통해 현대어로 번역하면 고전문학에서의 자신의 구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사고하는 방법을 익히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로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시는 조건은 답에 다가가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니 왜 내가 아는 작품이 나와도 못 풀고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못 풀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습하면서 문제로 제시된 작품들을 다시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스터디를 통해 개론서 읽기 & 현대시분석 & 현대 소설 분석 & 고전문문(하루에 3개씩) 분석 해오기

- 현대시 하루에 2개씩 + 현대 소설 일주일에 1작품 + 고전문문(하루에 3개씩)
- 실전과 같은 모의고사!
→실제로 답안에 적어보는 연습을 시간에 맞추어 해 보고, 스스로 채점을 하여 점수를 내 보았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온 작품들을 다음 모의고사가 있기 전까지 무조건 분석했습니다.
- 7-9월 문제로 기출 반복하기
→국교론과 마찬가지로 문학도 7-9월 문제를 통해 기출을 반복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지식을 암기하려 기보다는 조건들을 통해 기출의 스타일대로 사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문학작품 분석은 마지막까지!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문학 5

국어교육론에서 너무 이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학에서는 더더욱 이론 공부는 내려 놓으셔도 좋습니다.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이 활가분해지셨길 바랍니다.^.^ 물론, 한국문학사(고전/현대)의 큰 줄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고전은 시대상황,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으며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문학에서 내려놓아도 좋다고 말씀드린 이론은 각종 문학적 이론 가령, 시점·표현방법·문학의 구성 요소 등등입니다. 문학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론적인 것을 물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지 공부한 것을 평가 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2014학년도 이전에는 종종 이런 이론 문제도 등장했지만 2014학년도 이후에는 이론을 직접 물어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을 '활용'한 것은 나올 수 있겠죠. 가령, 2019학년도인가 2018학년도에 현대시 '하급반교과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반어법'을 '활용'하여 답을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기>나 <작성방법>에 '반어법'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현방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렇게 문학에 사용된 표현방법이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찾아낼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론은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사'는 송헌 선생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헌 선생님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학에서는 날개를 달고 수업을 하십니다. 재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사를 정말 머릿속에 수놓아 주십니다. 문학사 걱정은 뚝! 물론, 문학사만 공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작품을 문학사와 관련지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품을 삶과 관련지어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문학사는 그 '감상'을 도와 줄 수 있는 조력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학사는 2019,2020학년도 등등 매우 빈출되는 영역 이니만큼 시대별 문학사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송헌 선생님의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교재에 있는 시대별 도표정리를 정말 자주 봤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당시 사람들의 삶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교재/자료는 여러분의 취사선택 사항입니다. 절대 해당 자료나 교재를 사시라고 할 생각도 없고 강요도 아닙니다!!! 심지어 송헌 선생님도 수업 중에 농담 삼아 자료나 교재가 학원에 전시되어 있으니 학원 관계자에게 들키지 않고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 가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론/문학사를 해결했다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실제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고전시, 현대시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 전문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설'입니다. 소설 전문도 인터넷에서 서치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서치를 해도 해도 안 나오면 서점을 가서 책을 찾아보거나 도서관에 가서라도 읽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작품을 읽어야 하나?'가 다음 고민입니다. 전 송헌 선생님의 '고전산문을 보는 눈', '현대소설을 보는 눈'에 있는 목차를 보고 목차에 있는 소설 전부를 꼭 다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시간 나면 소설 읽었습니다. 소설 100작품을 읽었으면 분석은 10개 내외로 한 것 같습니다. 송헌 선생님 교재의 목차에 있는 소설/시 등등은 기출된 작품도 있지만 앞으로 기출 될 만한 작품이 주옥같이 널려 있습니다. 교재를 안보시더라도 목차 속 작품은 꼭꼭 챙겨가세요. 주변에서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백이면 백 온전한 작품 전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작품 전문 보고 독해력을 기르세요.

[김준&송헌국어] 영역별 공부 방법

자, 작품 읽기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송헌 선생님의 교재를 참고하시거나 카페 자료 등등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송헌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노랑진이 아니시더라도 카페에 글을 남기면 송헌 선생님께서 꼭꼭 댓글을 남겨주십니다. (돈 내고 강의 듣는데 최대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에서 당부를 드리자면 분석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분석은 독해력을 길러주는 공부입니다. 분석이 문학 공부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들 분석하고 있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정말 재밌고 하고 싶은 3-4편만 면밀히 분석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부인 만큼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참, 문학에서 기출 공부는 송헌 선생님과 함께 하는 풀이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로 시간을 내서 문학 기출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터디를 해도 좋고 개인적으로 답안을 써보는 것도 좋지만, 문학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하는지 송헌 선생님이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문학 정말 손쉽습니다. 겁먹지 마세요.